

한국 대학생의 중국에 대한 인식과 비교과 프로그램의 역할*

정소영**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선행 연구
3. 중국에 대한 감정과 이해
 - 3.1 중국에 대한 감정과 정서
 - 3.2 중국에 대한 지식과 이해
4. 중국 탐방 비교과 실례와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
 - 4.1 중국에 대한 인식
 - 4.2 중국 탐방 비교과 프로그램 전후 중국에 대한 인식 차이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25~2026년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쟁점화가 된 혐중 정서를 배경으로, 한국 대학생의 중국에 대한 실제 인식과 이해를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중국에 대한 태도가 간접 경험보다 직접 경험을 통해 더 긍정적으로 형성됨을 공통적으로 제시해왔으나, 대학 비교과 활동 전반의 영향을 종합 분석한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대학생 64명(남 35, 여 29)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감정·정서, 산업·법제도에 대한 객관적 이해도, 그리고 중국 관련 전공 여부, 중국 관련 수업 수강 여부, 중국 방문 경험 유무와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응답

* 이 논문은 2026년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재원으로 지원받은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및 2023년도 광운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임.

** 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

자의 60% 이상이 중국과 중국인에 부정적 감정을 보였고, 정치적 이미지도 51.6%가 부정적이었다. 산업과 기술에 이해도는 비교적 높았으나, 사유재산·상속세·증여세 등 법제도 영역에서는 80% 이상이 오답을 선택해, 인식이 이념적 이미지에 크게 좌우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t검정 결과 중국 방문 경험 유무($p<.001$)와 중국어나 중국 관련 과목 수강 여부($p<.01\sim.001$)는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인식 모두에서 유의미한 긍정 효과를 보였고,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 더 긍정적이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 중국 인식이 정치 이념적 프레임에 좌우됨을 실증하면서도, 직접 체험형 비교과 활동이 이를 완화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키워드 : 대학생 비교과 프로그램, 중국에 대한 인식, 혐중 정서, 중국 국제화 프로그램, 중국 산업과 법제

1. 들어가는 말

2025년 10월 10일 국민의 힘은 의료 쇼핑 방지, 선거 쇼핑 방지, 부동산 쇼핑 방지의 내용을 담은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였다. 의료 쇼핑 방지에는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강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 혜택과 국내 혜택이 상응할 때만 건강보험의 적용 가능 내용이, 선거 쇼핑 방지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재 규정을 7년 이상 연속 거주 등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부동산 쇼핑 방지에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시 사전 허가제 도입 및 대출 규제 강화의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이 2026년 6월 지방 선거를 의식하였든 아니든, ‘쇼핑’이라는 자극적 단어를 선택한 이면에는 공공의 적을 중국으로 돌려서 내부 결집력을 다지려는 의도는 다분하다고 보인다.

이에 대해 여러 매체들은 혐중 정서로 국민들을 소몰이하는 국민의 힘 당론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내 보냈다. 한국일보는 10월 10일, 11일, 13일 연

속해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이 반중 정서를 자극해서 이재명 정부에 위협
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임을 지적하였고,¹⁾ 경향신문은 10일 국민을 혐증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²⁾ 또한 조선일보는 10월 13일 사설에서 야당도
여당도 정쟁에 중국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경고하였으며,³⁾ 동아일보는 13일
외교와 경제의 각도에서 혐증의 위험함을 이야기하였다.⁴⁾

이를 아울러 2025년 10월 20일 한국기자협회는 언론 역할의 중요성에 대
한 기사를 실어 혐증 정서로 몰고 가는 국민의 힘의 당론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⁵⁾ 코로나의 여파가 사라지고, 정권이 바뀌고, 언론은 확실히 중국에 대
한 부정적 감정 물이에 대해서 주춤한 듯 하다. 정소영·김희교(2022a, 2022b)
에 따르면, 사드와 코로나 이후 언론은 앞장서서 중국을 공공의 적으로 내몰
았고, 그 시기 반중 정서는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무비자의 영향으로 2025년 8월 153만명이 상해를 찾는 등 한국인
의 중국 여행은 대폭 늘었고,⁶⁾ 2026년 4월 26일 South China Morning Post
는 “What’s fuelling the surge in South Koreans travelling to China?”라는
기사에서 무비자 정책, 크리에이터들의 활약 등으로 2025년 중국을 찾는 한
국인 관광객 수는 약 316만 명으로 2024년 대비 36.9% 증가했다고 보도하였
다.

이처럼 중국과의 관계가 완화되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실제 교육현장에서
접하는 MZ 대학생들은 중국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적이다. 일
본에 대한 비교과 활동에서는 오픈런을 방불케하는 접수가 이루어지지만, 중

1)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101015580003571>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101015460005023>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101314360000163>

2)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101340001>

3)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5/10/13/QRILCZLOBDEZAYXCBXM3HSGG4/>

4)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1012/132544935/1>

5)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9508>

6)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8201855b>

국의 비교과 활동은 중국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아니면 신청자가 많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관련 비교과 활동 상황을 공유하고, 한국 대학생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 현황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은 남학생 35명, 여학생 29명으로 총 64명이고, 중국 관련 전공 여부, 중국 관련 수업 수강 여부, 중국 방문 경험 유무와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으로 분석할 것이다.

2. 선행 연구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 대학생들은 학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중국에서의 언어학습 혹은 문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관련 비교과 활동(교환학생, 단기연수, 문화교류, 언어교환, 중국인과의 접촉 등)이 중국에 대한 감정이나 국가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다만 아래의 기존 연구들은 중국에 대한 태도는 단순히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한 간접적인 정보 습득보다 중국을 직접 경험하거나 중국인과 교류하는 경험을 통해 긍정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인숙(2018)은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 국가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중국 방문 경험이나 현지 체험과 같은 직접 경험이 중국에 대한 국가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인 친구와의 교류와 같은 관계적 경험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뉴스나 인터넷 등 텍스트를 통한 간접 경험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았다. 이는 직접적인 비교과 활동이 중국에 대한 인식 개선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진광호·하수권·이효영(2015)은 한국인 대학생과 중국인 대학생이 함께 참

여하는 언어교환 학습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었으며, 중국인에 대한 친밀감과 호감도 역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언어 학습과 문화 교류를 병행한 상호작용 경험은 중국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un(2015)은 한·중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여 학생교류가 상대 국가에 대한 이해와 호감도를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연구에서는 교환학생이나 단기 연수와 같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참가자의 문화적 이해와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국가 간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국가별 상황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함께 제시하였다.

Lee, Park, Kim(2021)은 한국인의 중국 및 중국인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중국인과 직접 접촉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편견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고정관념을 완화하고 상대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최정규(2024)는 중국인과의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중국인에 대한 제노포비아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인과의 접촉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제노포비아 역시 더욱 완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중국인에 대한 제노포비아는 중국 국가이미지와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연구는 중국인에 대한 제노포비아와 중국 국가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중 국민 간 관계 형성의 요인과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Yang, Li(2012)는 미국 대학생들이 3주짜리 짧은 중국 유학 프로그램을 다녀온 뒤, 중국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았다. 학생들은 중국에서 이상하거나 낯선 것을 접할 때, 그것을 중국의 체면 문화로 인식

하거나, 정부 통제로 연결시키는 경향이 짝었다. 즉, 현지에서 중국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미국에서 이미 갖고 있던 선입견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소화하였다. 따라서 미국 언론이 만들어 놓은 한쪽으로 치우친 중국 이미지를 깨려면 더 다양한 현지인의 시각과 깊이 있는 문화 이해를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Yu, Gu, Ye, & Shek (2024)에서는 홍콩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세 가지 유형(여름학교, 문화탐방, 서비스러닝)의 단기 중국 연수 프로그램이 중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인터뷰로 조사하였다. 17개 프로그램에 참여한 42명의 학생을 개별 인터뷰했으며, Intergroup Contact Theory(집단 간 접촉 이론)를 이론적 틀로 활용해, 현지인과의 직접 접촉이 고정관념을 완화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결과, 세 유형의 프로그램 모두 참가자들의 상호문화 역량뿐 아니라 중국 및 중국인에 대한 인식·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직접 확인하면서 이전의 편견과 대비되는 더 긍정적이고 공감적인 시각을 형성했고, 일부는 졸업 후 중국 본토로의 진로까지 고려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중국 관련 비교과 활동은 학생들에게 중국 사회와 문화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감정과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외연수, 기업 견학, 문화체험, 중국인 학생과의 교류 같은 직접 경험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중국에 대한 친밀감과 이해를 높이고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프로그램의 효과나 직접 접촉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학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 전반이 중국에 대한 감정과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관련 비교과 활동 참여 경험이 한국 대학생의 중국에 대한 감정과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를 확장하고자 한다.

3. 중국에 대한 감정과 이해

이번 장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이 중국에 대해 가지는 감정 태도와 실제로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의 중국에 대한 감정과 이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응답자는 총 64명으로, 남성 35명(54.7%), 여성 29명(45.3%)으로 구성되었고, 전공은 인문계열이 27명(42.2%)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경계열 24명(37.5%), 이공계열 12명(18.8%) 순이었다.

이 중에서 중국 관련 전공자는 13명(20.3%)에 불과하였으며, 중국어를 배운 경험이 있는 학생은 47명(73.4%), 중국 관련 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39명(60.9%)이다. 반면 중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은 2명(3.1%)에 불과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직접적인 중국 체류 경험 없이 중국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 여행 경험자는 19명(29.7%)으로 적은 편이었으며, 여행 경험이 없는 학생이 70.3%를 차지하였다. 이 19명에는 2026년 1월 교육부 HUSS 사업 국제화 비교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심천에 다녀왔던 학생들이 주를 이룬다⁷⁾.

구분	상세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35	54.7
	여	29	45.3
전공	인문	27	42.2
	상경	24	37.5
	이공	12	18.8
	기타	1	1.6
중국 관련 전공	있다	13	20.3
	없다	51	79.7

7) 2026년 1월 중국 선전으로 비교과를 수행하러 갔던 학생들은 서울 소재 K대학 학생 16명, 충청 소재 K대학 학생 16명이었고, 이들 중 16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중국어 배움	있다	47	73.4
	없다	17	26.6
중국관련 수업 수강	있다	39	60.9
	없다	25	39.1
6개월 이상 중국거주	있다	2	3.1
	없다	62	96.9
중국 여행 경험	있다	19	29.7
	없다	45	70.3
여행 횟수	1회	14	21.9
	1~3회	4	6.3
	4~5회	0	0
	5회 이상	2	3.1
	0회	44	68.8

3.1 중국에 대한 감정과 정서

64명의 학생들에게 중국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를 세 가지 선택하라고 했을 때, 학생들은 ‘중국음식, 공산주의, 여행’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중국이라는 단어를 들었을때 떠오르는 것	음식	29(명)	45.3(%)
	여행	8	12.5
	전통문화	2	3.1
	AI	3	4.7
	코로나	4	6.3
	동북공정	4	6.3
	사드	1	1.6
	김치	0	0
	한복	0	0
	공산주의	13	20.3

중국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으로는 ‘음식’이 29명(4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공산주의’가 13명(20.3%), ‘여행’이 8명(12.5%) 순이었다. 이는 학생들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에는 정치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공산주의와 관련하여 묻는 중국의 정치적 이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이 51.6%로 절반을 넘는 걸 볼 때,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정서는 정치·사회적 이슈와 결부되어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 이미지	긍정	1	1.6
	부정	33	51.6
	중립	30	46.9

또한 학생들은 중국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것의 세 번째가 여행이라고 응답하였고, 주관식 문항에서는 상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지역을 보았을 때 중국은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여행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혐오에 가까운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미국, 캐나다와 일본, 서유럽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중국보다 하위에 위치하는 지역은 중동 국가, 러시아, 남미, 아프리카 지역만이 있다.

하지만 주목할 만 한 점은 선호지역을 물었을 때 학생들은 중동, 러시아, 남미, 아프리카보다는 중국을 선호한다고 응답했지만, 거꾸로 혐오지역을 질문했을 때는 32명이 중국으로 응답하여 중동(33명) 지역과 더불어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선호지역	미국, 캐나다	47(명)	27.5(%)
	중국	9	5.3
	서유럽	23	13.5
	일본	38	22.2
	동남아시아	4	2.3

	러시아	3	1.8
	호주, 뉴질랜드	18	10.5
	중동국가	4	2.3
	남미	1	0.6
	동유럽	10	5.8
	북유럽	13	7.6
	아프리카	1	0.6
협오지역	미국, 캐나다	5	3.2
	중국	32	20.4
	서유럽	4	2.5
	일본	7	4.5
	동남아시아	15	9.6
	러시아	12	7.6
	호주, 뉴질랜드	1	0.6
	중동국가	33	21
	남미	18	11.5
	동유럽	2	1.3
	북유럽	5	3.2
	아프리카	23	14.6

하지만 경제협력의 대상 국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학생들의 22.2%가 중국이 미국에 이어서 중요한 국가라고 응답하였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라는 점에서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북미와의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이는 중국의 경제적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미·중 경쟁 심화와 양국 관계 변화 등이 응답자의 인식에 일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경제 협력 필요 지역	미국, 캐나다	60(명)	35.1(%)
	중국	38	22.2
	영국, EU	13	7.6
	일본	37	21.6

	동남아시아	4	2.3
	러시아	3	1.8
	호주, 뉴질랜드	4	2.3
	중동 국가	11	6.4
	남미	1	0.6
	아프리카	0	0

그렇다면, 테무(Temu) 등으로 중국 제품을 더욱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지금, 학생들은 중국의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제품 이미지	긍정	7(명)	10.9(%)
	부정	28	43.8
	중립	29	45.3

학생들은 중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위와 같이 부정과 중립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실제로 사용한 후에 중국 제품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문을 좀 더 구체화시켰다.

중국 제품 사용 여부	사용하지 않는다	14(명)	21.9(%)
	가끔 사서 사용한다	42	65.6
	자주 사서 사용한다	8	12.5
중국 제품 사용 만족도	아주 만족스럽지 못하다	2	3.1
	만족스럽지 못한 편이다	21	32.8
	만족스럽다	19	29.7
	아주 만족스럽다	0	0
	잘 모르겠다	22	34.4

78.1%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실제로 중국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사용 제품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응답에서는 중립이 34.4%, 긍정적인 반응이 29.7%, 부정적인 반응이 35.9%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제품의 종류와 가격대 별로 학생들의 만족도는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설문 문항에서는 5개의 척도로 중립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지만,⁸⁾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중립을 배제하고 4개의 척도로만 선택하게 하였는데, 설문 문항들에서 계속 중립을 선택한 학생들의 선택을 보고자 함이었다.

결과, 한국 대학생들의 중국에 대한 감정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53.1%가 ‘싫어하는 편이다’, 9.4%가 ‘아주 싫어한다’고 응답하여 전체의 62.5%가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반면 ‘좋아하는 편이다’는 37.5%였으며, ‘아주 좋아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중국인에 대한 이미지 역시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응답자의 62.6%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긍정적 평가는 37.5%에 그쳤다.

중국에 대한 선호 정도	아주 싫어한다	6(명)	9.4(%)
	싫어하는 편이다	34	53.1
	좋아하는 편이다	24	37.5
	아주 좋아한다	0	0
중국인에 대한 호감 정도	아주 싫어한다	4	6.3
	싫어하는 편이다	36	56.3
	좋아하는 편이다	24	37.5
	아주 좋아한다	0	0

학생들의 응답을 보면, 학생들은 중국과 중국인을 동일시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감정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학생들이 중국에 대한 객관

8) 설문의 질문과 응답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질문: 귀하는 중국 제품을 선호하십니까? 선택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설문은 이렇게 5개의 척도로 진행되었다.

적인 사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다음 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3.2 학생들의 중국에 대한 이해

본 연구는 학생들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정서 파트, 그리고 학생들이 객관적인 사실로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파트로 나누어 설문 문항을 설계하였다. 물론 학생들은 이 부분에 응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에 물었을 수도 있고, 자료를 검색했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해는 그다지 정확하지 않았다.

문항은 AI 관련 특허 부분, AI 민간 투자 부분, 드론 산업 부분, 전기차 산업 부분, 태양광 산업 등 대부분 현대 최첨단 산업의 기술적인 부분과 공산주의와 관련한 중국의 사유재산 관련 법제로 구성하였다.

우선 생성형 AI 특허의 경우 최근 국제 특허 통계자료를 보면, 중국은 생성형 AI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국가로 평가된다.⁹⁾ 그러나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은 12.5%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40.6%의 학생도 중국이 미국을 이은 2위로 인식하고 있어 중국의 높은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었다.

생성형 AI 특허	1위	8(명)	12.5(%)
	2위	26	40.6
	3위	16	25.0
	4~5위	11	17.2

9)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58069>

https://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24/article_0009.html. (WIPO Patent Landscape Report on GenAI 에 따르면, 2014~2023년 기간 동안 중국에서 3만 8천 건이 넘는 생성형 AI 특허가 출원되어, 2위인 미국보다 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s://thechinaacademy.org/china-dominates-ai-innovation-74-7-of-global-genai-patents/>(38,000건 이상의 생성형 인공지능(GenAI) 특허를 보유한 중국은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허 출원 상위 10위권에 속하는 중국 기업에는 텐센트, 평안보험, 바이두, 알리바바 그룹이 있다.)

	6~10위	2	3.1
	10위권 밖	1	1.6

AI 민간 투자 분야에서는 중국은 일반적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된다.¹⁰⁾ 이 문항에서는 42.2%가 2위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정당률을 보였다. 또한 28.1%는 중국을 1위라고 응답하여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민간 AI 투자	1위	18(명)	28.1(%)
	2위	27	42.2
	3위	11	17.2
	4~5위	5	7.8
	6~10위	2	3.1
	10위권 밖	1	1.6

드론 산업의 경우 중국은 세계 최대 드론 생산국이자 시장 지배력을 가진 국가이다.¹¹⁾ 이에 대해 45.3%의 학생이 1위라고 응답하여 비교적 정확한 이해도를 보였다. 또한 73.4%가 1~2위로 응답하여 중국의 드론 경쟁력에 대한 이해도는 꽤 정확하게 나타났다.

10) Stanford HAI, AI Index Report(2025년 보고서, 2024년 데이터 기준)에 의하면, 미국의 민간 AI 투자는 1,091억 달러로, 중국(93억 달러)의 약 12배, 영국(45억 달러)의 24배에 달한다. 이 보고서에서의 민간 AI 투자 순위는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영국이다. 2026년 보고서(2025년 데이터 기준)에 따르면, 미국의 민간 AI 투자는 2,859억 달러로 급증했고, 중국은 124억 달러로 미국의 23분의 1 수준이다. 다만 이 수치는 민간 투자만 집계한 것으로, 중국 정부의 국가유도기금(government guidance funds)을 포함하면 실제 중국의 AI 투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11) USCC(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의 2025년도 보고에 따르면, 중국이 상업용 드론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 DJI가 전 세계 드론 시장의 약 70%, 소비자용 드론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드론 산업	1위	29(명)	45.3(%)
	2위	18	28.1
	3위	7	10.9
	4~5위	9	14.1
	6~10위	1	1.6
	10위권 밖	0	0

전기차 산업 역시 중국은 생산량, 판매량, 시장 규모 측면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¹²⁾ 그러나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은 35.9%에 그쳤다. 다만 62.5%가 중국을 1~2위로 평가하여 전반적인 경쟁력에 대해서는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기차 산업	1위	23(명)	35.9(%)
	2위	17	26.6
	3위	8	12.5
	4~5위	12	18.8
	6~10위	4	6.3
	10위권 밖	0	0

태양광 산업에서는 중국이 생산량과 공급망 점유율 측면에서 세계 1위 국가로 평가되지만,¹³⁾ 이를 정확하게 인식한 학생은 26.6%에 불과하였다. 오히려 2위(28.1%)와 3위(29.7%) 응답이 더 많아 중국의 태양광 산업 경쟁력이

12) IEA(국제에너지기구)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전기차 생산의 허브로서 전 세계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배터리 부문에서도 중국은 2025년 기준 전 세계 배터리 셀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13) IEA(국제에너지기구)의 태양광 공급망 전문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생산의 5대 핵심 공정 전 단계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Polysilicon, ingot, wafer 부문에서는 건설 중인 생산설비 기준으로 중국의 점유율이 조만간 95%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신장(新疆) 지역 한 곳만으로도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IEA는 2025년까지 전 세계가 태양광 패널 생산의 핵심 부품 공급을 사실상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에너지 안보 측면의 우려를 낳는다고 평가한다.

실제보다 다소 낮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양광 산업	1위	17(명)	26.6(%)
	2위	18	28.1
	3위	19	29.7
	4~5위	7	10.9
	6~10위	2	3.1
	10위권 밖	1	1.6

전체적으로 한국 대학생들은 중국의 산업 경쟁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미세한 차이가 있었지만 절반의 학생들은 중국의 산업과 기술에 대해 대체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드론 산업(45.3%)과 AI 민간 투자 부분(42.2%)에 대한 이해도가 정확한 반면, 생성형 AI 특허(12.5%) 부분의 이해도가 가장 낮았다. 아마도 중국이 특허를 가지고 기술 경쟁력의 우위를 점한다는 생각보다는 제품의 복제, 기술력의 불법적인 경로 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학생들의 이해에 영향을 미친 듯 하다.

이제 사유재산과 관련된 중국 법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살펴보자.

앞서 학생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공산주의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드러났고, 실제로 중국의 사유재산제,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을 구성하였다. 이 부분의 분석 결과는 과학 기술 부분의 문항들과는 달리, 학생들의 인식과 실제 중국 법제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004년 중국 헌법 개정을 통해 사유재산 보호 조항이 명문화되었으며, 2007년 「물권법(物權法)」 제정, 2021년 시행된 「민법전(民法典)」에서도 개인 재산권 보호가 규정되어 있고,¹⁴⁾ 현재까지 물권법(2007)과 민법전

14) <https://www.cecc.gov/resources/legal-provisions/2004-amendment-to-the-constitution-of-the-peoples-republic-of-china>

(2021) 모두 자동 연장만 규정하고, 갱신 비용 산정 기준은 여전히 국무원 차원의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¹⁵⁾ 즉, 주택, 예금, 자동차, 주식 등 개인 재산은 법적으로 소유 및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응답자의 57.8%가 중국에서는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사유재산	가능	27(명)	42.2(%)
소유	불가능	37	57.8

많은 학생들은 중국을 여전히 전통적인 공산주의 계획경제 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시장경제 체제와 재산권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보여준다.

그 다음 질문은 중국의 상속세와 관련된 문항들이다. 현재 중국에는 국가 차원의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여러 차례 상속세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다.¹⁶⁾ 따라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별도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속세가 없다’를 선택한 학생은 17.2%에 불과하였다. 반대로 82.8%의 학생들은 중국에도 한국이나 서구 국가처럼 상속세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가장 많은 응답이 세율 10~30%(35.9%)였으며, 세율 30~50%라고 응답한 학생도 25.0%에 달하였다.

상속세	없다	11(명)	17.2(%)
여부	세율 10%	13	20.3

15) <https://www.cushmanwakefield.com/en/greater-china/insights/blog/navigating-mainland-chinas-land-use-right-renewal-landscape>

16) <https://www.maemura.com/international-comparison-of-inheritance-tax-system-and-chinas-choice> 1996년 국가세무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은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 방안을 처음 제안했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https://taxsummaries.pwc.com/peoples-republic-of-china/individual> 현재 중국에는 상속세, 유산세, 증여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만		
	세율 10~30%	23	35.9
	세율 30~50%	16	25.0
	세율 50~75%	1	1.6

증여세에 관한 응답도 별반 다르지 않다. 현재 중국에는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증여세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족 간 재산 증여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재산 이전 과정에서 관련 세금이 일부 발생할 수는 있으나 한국과 같은 증여세 제도는 운영되지 않는다. 하지만 17.2%에 해당하는 학생만 ‘증여세가 없다’를 선택하였고, 82.8%의 학생들은 중국에 증여세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히 세율 10~30%와 30~50% 구간 응답이 각각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없다	11(명)	17.2(%)
	세율 10% 미만	16	25.0
증여세 여부	세율 10~30%	18	28.1
	세율 30~50%	18	28.1
	세율 50~75%	1	1.6

이는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실제 제도에 대한 정보보다는 공산주의라는 키워드가 학생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설문으로, 한국 대학생들은 중국의 경제력과 산업 경쟁력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이해도를 보였으나, 중국의 법률 및 재산 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유재산 제도에 관한 문항은 42.2%, 상속세 제도는 17.2%, 증여세 제도는 17.2%의 정답률을 보였로, 세제 관련 문항에서는 약

80% 이상의 학생들이 오답을 선택하였다.

특히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는 정치적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사유재산 소유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나, 상속세와 증여세가 크게 존재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대학생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정치적·이념적 이미지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실제 법률 및 경제 제도에 대한 구체적 지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중국 관련 교육에서는 정치·외교적 이슈뿐 아니라 중국의 실제 법제도와 경제 운영 방식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대학생 대상 중국 탐방 비교과 실례와 중국에 대한 인식

4.1 중국에 대한 인식

본 연구는 2026년 1월 HUSS 국제화 프로그램에 참석한 학생들을 비롯하여,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 여행 경험 유무, 중국어 수강 유무, 성별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전공(인문계, 이공계, 경상계)별로 중국 관련에 따른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검증해 보았고, 이를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는데, 분석 결과 전공에 따라 중국 선호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776$, $df=62$, $p<.01$). 구체적으로는 전공이 중국과 관련이 있을 때($M=2.69$, $SD=0.48$)가 중국과 관련이 없을 때($M=2.18$, $SD=0.62$)보다 중국에 대한 긍정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련 전공과 중국인에 대한 선호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전공별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인식〉

변수	구분	N	M	SD	t	df	p
중국	있다	13	2.69	0.48	2.776	62	0.00
	없다	51	2.18	0.62			7**
중국인	있다	13	2.54	0.66	1.571	62	0.12
	없다	51	2.25	0.56			1

* $p<.05$, ** $p<.01$, *** $p<.001$

그 다음으로, 중국어 혹은 중국문화 과목 수강 유무에 따른 중국과 중국인 선호도 차이를 검증하였고, 분석 결과 수강했을 때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중국 관련 과목을 수강을 했을 때($M=2.49$, $SD=0.56$)가 수강을 하지 않았을 때($M=1.96$, $SD=0.6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중국 관련 과목을 수강을 했을 때($M=2.46$, $SD=0.55$)가 수강을 하지 않았을 때($M=2.08$, $SD=0.5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련 과목 수강여부-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인식〉

변수	구분	N	M	SD	t	df	p
중국	있다	39	2.49	0.56	3.561	62	0.00
	없다	25	1.96	0.61			1**
중국인	있다	39	2.46	0.55	2.563	62	0.01
	없다	25	2.08	0.57			*

* $p<.05$, ** $p<.01$, *** $p<.001$

중국 방문 유무에 따른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인식은, 중국을 방문했을 때($M=2.68$, $SD=0.48$)가 방문을 하지 않았을 때($M=2.11$, $SD=0.61$)보다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방문을 했을 때($M=2.68$, $SD=0.48$)가 방문을 하지 않았을 때($M=2.16$, $SD=0.5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방문과 중국, 중국인에 대한 인식 >

변수	구분	N	M	SD	t	df	p
중국	있다	19	2.68	0.48	3.638	62	0.00
	없다	45	2.11	0.61			1**
중국인	있다	19	2.68	0.48	3.584	62	0.00
	없다	45	2.16	0.56			1**

* $p<.05$, ** $p<.01$, *** $p<.001$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M=2.48$, $SD=0.51$)이 남성($M=2.11$, $SD=0.68$)보다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인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도 여성($M=2.52$, $SD=0.57$)이 남성($M=2.14$, $SD=0.5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 선호 차이>

변수	구분	N	M	SD	t	df	p
중국	남성	35	2.11	0.68	-2.42	62	0.01
	여성	29	2.48	0.51	1		8*
중국인	남성	35	2.14	0.55	-2.65	62	0.01
	여성	29	2.52	0.57	7		*

* $p<.05$, ** $p<.01$, *** $p<.001$

4.2 중국 탐방 비교과 프로그램 전후 인식 차이

2026년 1월 서울 소재 K 대학교 학생 16명과 충남 소재 K대학교 학생들이 16명은 교육부 HUSS 국제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국 선전(深川)의 IT 기업, 창업 공방, 시청 등을 4박 5일간 탐방하였다.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시	오전	오후
1월 20일	중국 심천(深圳) 도착	창업지원센터 대공방 탐방
1월 21일	바이두(百度)견학, 강의 수강 및 자율주행 택시 탑승 체험	조별활동
1월 22일	BYD 견학, 강의 수강 및 무인전철 탑승 체험	조별활동
1월 23일	시청 공업박물관 견학	단체 조별 발표회

학생들은 1월 20일 오후 1시에 중국 심천(선전, 深圳) 바오안(宝安) 국제 공항에 도착하여 대공방(大公坊)¹⁷⁾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하드웨어 관련 청년창업에 관한 교육을 받고 실제 창업 랩을 둘러보았다. 이튿날 오전 학생들은 바이두(百度) 회사를 견학하여 자율주행택시를 탑승 후, 강의를 들었으며, 그 다음날은 BYD에서 자율 주행 콘트롤 시스템에 대해 강의를 듣고 무인전철을 탑승하였다. 학생들은 오후 조별활동을 거쳐 조별활동 보고서와 솜뿔을 준비하였고, 마지막 날 저녁 다같이 모여 조별 발표회 시간을 가졌다.

설문은 중국을 다녀온 후 진행되었고, 총 4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심천을 다녀온 후 설문에 참여한 학생은 16명이었고, 다녀오지 않은 학생들과의 비교를 위해서 동일 대학의 인문사회대학 2개 학과, 자연대학 1개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문항의 설문을 진행하였다. 위에서도 보았듯이, 설문은 중국에 대한 감정, 이해를 주를 이루었고, 가장 마지막 질문은 중국 경험 여부의 인식변화에 대해 묻는 문항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귀하가 중국에 대한 인식이 변한 적이 있다면 1) 어떻게(긍정에서 부정인지, 부정에서 긍정인지, 무관심에서 긍정, 무관심에서 부정인지 등) 변하였고, 2) 어떤 계기로 변하였습니까?”를 주관식으로 물었고, 1) 질문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아래 표

17) 심천은 중국 내에서 창업의 도시로 불리며 500개가 넘는 창업 보육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대공방(大公坊, iMakerbase)은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위한 대표적인 액셀러레이터이자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곳으로, 중국 정부의 공인 자격을 받은 기관 중 하나이다. 이곳에서는 창업 시제품 제작 지원, 창업 교육 인프라 공유, 지역 기업과의 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국내외 기업 및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글로벌 창업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와 같은 수치를 얻을 수 있었다.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

구분		변화									
		긍정		부정		관심		무관심		중립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기 존	긍정	-	-	2	3.1	-	-	-	-	-	-
	부정	16	25.0	6	9.4	-	-	1	1.6	5	7.8
	관심	-	-	-	-	-	-	-	-	-	-
	무관심	7	10.9	9	14.1	3	4.7	9	14.1	4	6.3
	중립	1	1.6	1	1.6	-	-	-	-	-	-

세로 축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중국에 대한 인식이고, 가로 축은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무관심을 약한 부정, 관심을 약한 긍정으로 평가해서 엑셀에 기입한 후, 다음과 같은 표를 도출하였다.

구분	빈도(명)	비율(%)
긍정 → 부정	12	18.8
부정 → 긍정	37	57.9
태도 유지	15	23.5

그 다음으로는 중국 방문 여부가 중국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었는지에 관한 질문이다. 중국에 다녀온 학생들은 19명이었는데, 16명이 이번 심천 비교과 프로그램 참가자여서, 실제로는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인식변화를 분석한 것과 다름없다.

〈중국 방문 경험 - 중국 인식변화〉

구분			변화									
			긍정		부정		관심		무관심		중립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기 존	방문 O	긍정	-	-	-	-	-	-	-	-	-	-
		부정	5	26.3	1	5.3	-	-	-	-	-	-
		관심	-	-	-	-	-	-	-	-	-	-
		무관심	5	26.3	1	5.3	1	5.3	3	15.8	3	15.8
		중립	-	-	-	-	-	-	-	-	-	-
	방문 X	긍정	-	-	2	4.4	-	-	-	-	-	-
		부정	11	24.4	5	11.1	-	-	1	2.2	5	11.1
		관심	-	-	-	-	-	-	-	-	-	-
		무관심	2	4.4	8	17.8	2	4.4	6	13.3	1	2.2
		중립	1	2.2	1	2.2	-	-	-	-	-	-

표를 보면, 중국 방문 여부 유무에 따른 두 집단에는 뚜렷한 차이가 보인다. 방문 경험이 있는 학생 19명은 예외 없이 부정(6명, 31.6%) 또는 무관심(13명, 68.4%) 상태에서 출발하여, 애초에 긍정적이거나 관심을 가진 학생이 전무했다. 반면 방문 경험이 없는 학생 45명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출발점을 보여, 부정 22명(48.9%), 무관심 19명(42.2%), 긍정 2명(4.4%), 중립 2명(4.4%)이다. 두 집단을 합산하면 전체 64명 가운데 부정에서 출발한 학생이 28명(43.8%), 무관심에서 출발한 학생이 32명(50.0%)으로, 응답자의 90% 이상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계기로 두 집단 모두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정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¹⁸⁾. 이 차이를 수치

18) 중국에 관한 인식 변화는 이번 비교과 프로그램 뿐 아니라, 중국 방문이 없었던 학생들은 각종 매체(코로나 등의 중국에 대한 보도), 중국인 친구, 중국 관련 수업, 한복 혹은 김치로 이슈로 인한 문화갈등 등으로 중국에 관한 인식이나 감정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으며, 이 변화는 그런 계기들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화 시키기 위하여 무관심과 관심을 각각 약한 부정과 약한 긍정으로 간주하여 긍정, 관심, 중립, 무관심, 부정 순의 서열척도로 재구성하였고, 개인별 이동 방향을 살펴본 결과, 방문 경험이 있는 학생 19명 중 14명(73.7%)의 인식이 개선되었고(부정 방향에서 긍정 방향으로 이동), 4명(21.1%)은 태도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악화된 경우는 단 1명(5.3%)에 그쳤다. 이에 비해 방문 경험이 없는 학생 45명 중에서는 23명(51.1%)만이 개선되었고, 11명(24.4%)은 태도를 유지했으며, 오히려 11명(24.4%)은 인식이 악화되어 방문 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개선율은 낮고 악화율은 약 4~5배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을 통합한 전체 64명 기준으로는 개선 37명(57.9%), 유지 15명(23.5%), 악화 12명(18.8%)으로,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국제화 중국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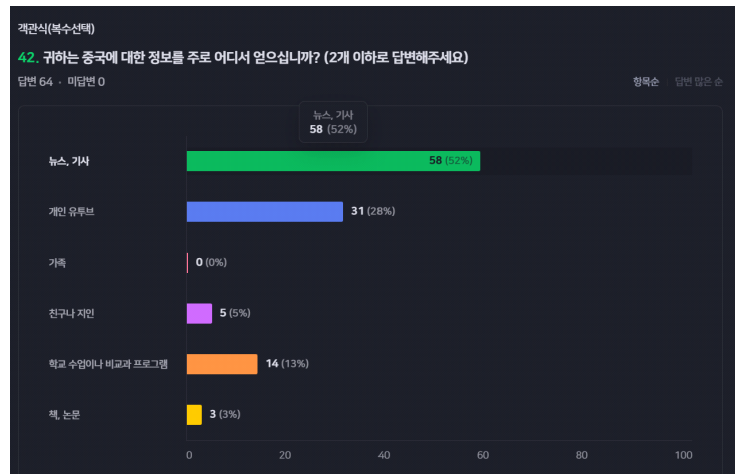
가장 뚜렷한 시사점은, 중국을 실제로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프로그램 참여 후 인식이 압도적으로 긍정 쪽으로 이동한 반면(긍정 52.6% vs 부정 10.5%), 방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긍정과 부정으로 거의 절반씩 갈렸다는 것이다(긍정 31.1% vs 부정 35.6%).

다음은 학생들이 중국에 대한 인식변화가 되었던 계기들을 묻는 문항에 주관식으로 응답한 결과의 샘플이다.

	응답결과
1	심천에 다녀온 뒤로 무관심에서 긍정이 되었습니다
2	심천 투어로 부정적인 게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3	원래는 중국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이번에 심천을 다녀오면서 좋은 점도 많다고 느껴서 중립이 되었다
4	중립에서 부정, 중국 여행 중 만난 사람들의 무례함
5	무관심에서 부정, 코로나.
6	최근 언론이나 정치에서 지나치게 중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큼, 한편 지나치게 중국을 싫어하는 경향도 커지고 있음. 어느 쪽의 의견을 들어봐도 극단적인 의견밖에 없기에 오히려 반감이 들기 시작함.
7	부정에서 관심, 중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관심이 생겼다.
8	1) 이번 중국 탐방을 통해 확실히 인식이 긍정으로 변화한 부분이 있다.

	2) 걱정과 달리 중국은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고 다른 나라들 보다 한 발자국 앞서나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걸 몸소 체험해 보니 편견이 많이 줄게된 것 같다.
9	1) 부정->긍정 2) 이전엔 부정적 인식이 있었는데, 심천을 다녀오며 깨끗한 거리와 큰 건물들을 보고 경제력이 강하다는 것을 알았고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화했다.
10	무관심에서 관심) 상하이여행, 중국인친구 사귀, 중국어기초교양수업 수강등, 인문학도로서 중국공부의 필요성, 중국문화의 실질적 다양성이 가져다주는 매력
11	무관심 부정에서 무관심 긍정, 외교에 있어서 중국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12	부정에서 긍정 강대국이기에 기술적으로 도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교류가 투명하고 깔끔하게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13	부정에서 긍정, huss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에 미디어에서 접한 부정적인 측면이 중국의 모든 것이 아니며 중국이 굉장히 선진적이고 배울만한 점이 많다고 느꼈기 때문에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화였다
14	부정에서 긍정 강대국이기에 기술적으로 도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교류가 투명하고 깔끔하게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15	1) 부정에서 중립으로 변한 것 같다. 2) 이번에 심천을 다녀오면서 중국의 기술력이 생각보다 더 좋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체제로는 세계 1등이 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중립이라고 생각한다.
16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뉴스든 주변사람들에 대한 평가들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는데 중국 기업탐방으로 인해 사실 중국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고 그게 중국 문화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완전 부정까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17	중국이 굉장히 뒤떨어진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성인이 된 이후, 직접 찾아보고 접한 여러 매체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변했다.
18	이번 huss 프로그램 덕분에 중국인의 더러운 이미지는 조금 줄어들었다
19	이번 휴스 중국 탐방을 통해 기술의 위대함을 알아서 위협감과 대단함을 둘다 느꼈던 것 같아
20	1) 무관심에서 부정 2) 코로나 발생 이후 뉴스를 많이 접하며

그렇다면, 학생들은 기존에 중국에 대한 소스를 어디에서 얻었을까 궁금했고,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대부분은 뉴스와 기사에서 중국을 접했고, 학생들이 주로 접하는 언론사는 다음과 같았다.



응답결과에는 기타가 가장 많았는데, 학생들이 기타로 응답한 것에서는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포털사이트라 정확한 소스를 알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

만 대표 언론사 중에서는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고, 두 매체 모두 중국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주로 다루는 보수매체여서¹⁹⁾ 학생들이 중국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 64명(남 35명, 여 29명)을 대상으로 중국 관련 비교과 활동 경험이 중국 및 중국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2026년 1월 서울 소재 K대학이 참여한 교육부 HUSS 국제화 프로그램(중국 深圳 4박 5일 탐방)을 사례로 삼아, 전공의 중국 관련성, 중국 관련 과목 수강 여부, 중국 방문 경험 여부, 성별에 따른 중국·중국인에 대한 인식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전공이 중국과 관련이 있는 학생($M=2.69$)은 그렇지 않은 학생($M=2.18$)보다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t=2.776$, $p<.01$). 다만 중국인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t=1.571$, $p=.121$), 전공적 관련성은 ‘국가’로서의 중국에 대한 인식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중국인’이라는 대상에 대한 인식에는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 관련 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중국($M=2.49$ vs 1.96 , $t=3.561$, $p<.001$)과 중국인($M=2.46$ vs 2.08 , $t=2.563$, $p<.01$) 모두에 대해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는 정규 교과과정을 통한 간접 학습 경험 역시 중국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중국 방문 경험이 있는 학생은 중국($M=2.68$ vs 2.11 , $t=3.638$, $p<.001$)과 중국인($M=2.68$ vs 2.16 , $t=3.584$, $p<.001$)에 대해 가장 뚜렷한 긍

19) 정소영, 김희교(2022a,b) 참조

정적 인식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검증한 네 가지 변수 중 가장 일관되고 강한 효과로, 직접적인 현지 방문·체험이 간접 경험(수업 수강)보다 인식 개선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중국($M=2.48$ vs 2.11 , $t=-2.421$, $p<.05$)과 중국인($M=2.52$ vs 2.14 , $t=-2.657$, $p<.01$) 모두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5~2026년 한국 사회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논의 등으로 혐중 정서가 정치적 쟁점화가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거시적·정치적 분위기와 무관하게, 대학 차원의 비교과 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중국 체험 기회 제공이 개별 학생 수준에서는 여전히 유의미한 인식 개선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표본 수가 64명으로 제한적이며, 중국 방문 경험자 19명 중 상당수가 동일한 HUSS 프로그램 참여자로 구성되어 있어 표본의 동질성 문제와 자기선택 편향(self-selection bias)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한국 언론 보도의 담론적 증위와 개별 학생의 설문 응답이라는 미시적 증위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혐중 정서가 정치적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주장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시의적 가치가 있고, 대학생들이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와 실제 중국의 산업 경쟁력과 법,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의 ‘지식’을 분리해서 측정한 방법론적 기여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 2027년 1월에 진행되는 국제화 프로그램에서는 표본 규모를 확대하고, 방문 전후 종단적 설계(pre-post design)를 도입하여 인과관계를 보다 엄밀하게 검증할 것이다.

參考文獻

- 김인숙, 「직접경험, 관계적 통로, 텍스트적 통로가 중국 국가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Journal of China Studies』, 제21권 제1호, 2018
- 정소영·김희교, 「의미연결망분석과 감성분석을 통해 본 한국 언론의 중국 보도와 반중 감정 — 코로나 19 사태 전후를 중심으로」, 『국어문논총』, 제110집, 2022
- 정소영·김희교, 「중국 관련 보도의 어휘 사용과 반중 감정 - <중앙일보>와 <한겨레>의 사드 배치 보도를 중심으로」, 『중국언어문화연구』, 제65집, 2022
- 진광호·하수권·이효영, 「Tandem 수업이 한국인 대학생의 중국 문화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외국학연구』, 제34호, 2015
- 최정규(2024), 『중국 관련 미디어 이슈 뉴스 및 미디어 콘텐츠 노출과 접촉경험이 중국인에 대한 제노포비아와 중국 국가이미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4
- Lee, J.-H., Park, M.-Y., & Kim, S.-I. Koreans' attitudes toward China and Chinese people: The effect of direct contact experience.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49(4), 2021
- Yang, Li, *The impact of a study abroad program in China on its participants' attitudes towards China*. University of Minnesota, 2012
- Yu, L., Gu, M., Ye, S. & Shek, D. T. L. The impact of short-term study in China programs: Voices of Hong Kong university student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9, 2024
- Yun, S.-H., Does Student Exchange Bring Symmetrical Benefits to Both Countries? An Exploration Case for China and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9, 2015

Stanford HAI 2025 AI Index Report. *AI Index Report 2025*. Stanford Institute for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HAI), Stanford University, 2025

Stanford HAI 2026 AI Index Report. *AI Index Report 2026*. Stanford Institute for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HAI), Stanford University, 2026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Made in China 2025: Evaluating China's Performance*. Washington, DC: USCC, 2025

International Energy Agency, *Solar PV Global Supply Chains*. Paris: IEA, 2022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101015580003571>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101015460005023>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101314360000163>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10134000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5/10/13/QRILCZLOBDEZAYXCBX M3HSGG4/>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1012/132544935/1>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9508>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8201855b>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58069>

https://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24/article_0009.html

<https://thechinaacademy.org/china-dominates-ai-innovation-74-7-of-global-genai-patents/>

<https://www.cecc.gov/resources/legal-provisions/2004-amendment-to-the-constitution-of-the-peoples-republic-of-china>

<https://www.cushmanwakefield.com/en/greater-china/insights/blog/navigating->

mainland-chinas-land-use-right-renewal-landscape

<https://www.maemura.com/international-comparison-of-inheritance-tax-system-and-chinas-choice>

m-and-chinas-choice

<https://taxsummaries.pwc.com/peoples-republic-of-china/individual>

<https://doi.org/10.2224/sbp.9133>

<https://doi.org/10.1007/s11482-023-10229-1>

Abstract

Korean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f China and the Role of Extracurricular Programs

Jhong, So Young

This study examines Korean university students' actual perceptions and understanding of China against the backdrop of anti-China sentiment that became politically contentious in Korean society during 2025–2026. Prior research has consistently suggested that attitudes toward China are formed more positively through direct experience than indirect exposure, yet studies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overall impact of university extracurricular activities have been lacking.

Accordingly, a survey was conducted with 64 university students (35 male, 29 female) to analyze differences in emotional attitudes, objective understanding of industrial and legal systems, and perception differences according to major, course enrollment, visit experience, and gender, using independent samples *t*-tests. Over 60% of respondents expressed negative feelings toward China and Chinese people, and 51.6% held negative views of China's political image. While understanding of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was relatively high, over 80% selected incorrect answers regarding legal systems such as private property rights, inheritance tax, and gift tax—demonstrating that perceptions are heavily shaped by ideological imagery rather than factual knowledge.

However, *t*-test results showed that both prior visit experience to China ($p < .001$) and enrollment in Chinese language or China-related courses ($p < .01 \sim .001$)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perceptions of both China and Chinese people, with women showing more positive perceptions than men toward both.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empirically demonstrating that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f China are shaped by political and ideological frames, while also

confirming that direct, experience-based extracurricular activities can help mitigate such biased perceptions.

Key words : University Extracurricular Programs, Perception of China, Anti-China Sentiment, China Internationalization Programs, Chinese Industry and Legal System

투 고 일 : 2026. 7. 10. / 심 사 일 : 2026. 7. 15. ~ 2026. 8. 15. / 게재확정일 : 2026. 8. 20.
